

1990年代 國防情勢 展望과 韓國安保*

林 東 源**

I

未來가 항상 그러하듯이 1990年代의 國際情勢도 現在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流動性과 不確實性의 안개속에 가려 있습니다. 그러나 1980年代 後半期에 시작된 커다란 變化 趨勢가 우여곡절은 있겠으나 계속 될 것으로 볼 때, 1990年代는 第2次 世界大戰 終末以來 계속되어 온 「冷戰時代」를 마무리 짓고 脫冷戰時代(Post-Cold War Era)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國際秩序의 時代」로 移行하는 중요한 「轉換期」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轉換期가 갖는 特性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모름지기 冷戰的 要素와 脫冷戰的 새로운 要素가, 그리고 過去와 未來, 前進과 後退, 順機能과 逆機能, 機會와 危險이 共存 混在하는 時代가 될 것이며, 歷史의 主役들이 새로운 挑戰에 얼마나 슬기롭게 對應하느냐에 따라 歷史의 方向이 定해될 것입니다.

國際保安側面에서는 東西陳營間의 軍事的 對決 대신에 協力, 封鎖 대신에 開放, 絶對安保 대신에 共同安保, 軍備競爭 대신에 軍備統制로의 轉換趨勢를 보이고 있으며, 核對決下에서 人類를 破滅의 危機로 몰아 넣은 공포의 時代에서 보다 平和롭고 安全한 새로운 時代를 指向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1990年代는 全人類에 있어서 「希望의 年代」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期待를 갖게 합니다.

韓半島에 있어서도 半世紀에 걸친 分斷과 對決의 쓰라린 歷史를 청산하고 平和를 定着시켜, 統一에 보다 더 가까이 接近할 수 있는 絶好의 機會가 올 수 있을 것이라는 期待를 갖게 합니다. 어떠한 視角에서 보더라도 앞으로의 10年은 우리 民族의 運命을 左右할 「機會의 年代」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本 記事는 1989年 秋季學術大會時 發表된 基調演說文의 內容임.
** 外交安保研究院

II

새로운 國際情勢의 一般的 變化趨勢를 세가지로 要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變化는 蘇聯과 共産圈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經濟停滯(stagnation)로 말미암아 現體制로서는 더이상 發展할 수 없는 限界와 危機에 逢着한 蘇聯은 根本的이고도 全面的인 改革을 推進하고 있으며, 이러한 改革의 成敗는 國際關係에 커다란 影響을 주게 될 것입니다.

둘째, 美·蘇間의 新데탕트가 構造化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超強大國은 더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과도하게 國力을 소모한 軍事的 競爭과 對決보다는 軍備減縮, 政治的 和解와 經濟協力을 指向하고 있으며, 이러한 趨勢는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展望됩니다.

셋째, 美·蘇 超強大國이 國際關係 全般을 支配하던 兩極體制에 대신하여 多極體制가 出現하고 있습니다. 陳營間的 對決보다는 個別國家間的 國家利益中心의 競爭과 協력이, 그리고 安保重視의 high politics보다는 交易·投資·技術協力 등 經濟中心의 low politics가 國際關係의 特徵으로 浮刻될 것으로 展望됩니다.

이러한 國際情勢의 變化推移와 관련하여 韓半島에 影響을 줄 수도 있는 問題들을 中心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I

1980年代 後半期에 시작된 蘇聯의 變化는 美·蘇 新데탕트를 可能케 했고 脫冷戰의 기를을 마련하는데 크게 寄與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蘇聯의 改革이 순조로히 進行될 것인가, 蘇聯이 어떻게 變化할 것인가는 1990年代 國際情勢와 韓半島 安保에 중대한 影響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結論부터 말씀드리면, 蘇聯의 經濟改革이 民主化와 多元化를 수반하면서 成功的으로 進陞된다면 이는 분명히 世界平和와 安全에 寄與하고 脫冷戰의 새로운 國際秩序 形成과 韓半島 平和定着에 順機能으로 作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蘇聯의 改革이 失敗하고 混亂에 빠져 「붉은 파시즘」(Red Fascism)의 反動的 全體主義가 대두하게 된다면 東西關係는 다시 緊張하게 되고 冷戰時代로 되돌아가게 될 危險을 想定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르바초프가 推進하고 있는 改革의 目標은 소비에트體制의 變革을 통해 經濟를 再建하고 産業

社會에서 情報化社會로 移行하고 있는 西方先進諸國의 發展隊列에 參與하려는데 있습니다. 이 隊列에 參與하지 못하면 蘇聯은 「核武器를 가진 開途國」 또는 「第三流 國家」로 落伍되고 말것이라는 危機意識이 「根本的이고도 全面的인 改革」을 推進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根本的」이란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의 修正내지 部分的인 廢棄를 의미하며 「全面的」이라 함은 經濟改革(perestroika)뿐만 아니라, 經濟改革을 可能케 하고 成功할 수 있도록 保障하기 위하여 自由化, 民主化, 開放(demokratizatsia, glasnost) 등 政治的, 社會的 改革도 同時에 並行 推進함을 意味합니다.

蘇聯은 經濟的 停滯와 技術의 落後를 克服하고 活力있는 社會를 建設하기 위하여 發展의 沮害要因인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와 스탈린主義的 全體主義體制를 段階的으로 解體하고 새로운 要素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要素란 ① 資本主義的 市場 經濟原理과 ② 人間的 要素의 尊貴함과 ③ 民主主義 理念 등을 말합니다.

한편 經濟再建에 必要한 資源調達을 위하여 ① 軍事費의 대폭 減縮, ② 外國의 資本과 技術의 導入, ③ 國際經濟圈에의 參與 등을 推進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國內에서의 改革을 成功的으로 推進하려면, 膨脹主義 政策을 포기하고 外部世界와의 關係改善을 통해 國際環境의 安定과 平和를 維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思考」에 의한 外交·安保政策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東西關係에 새로운 轉機를 마련케 하는 要因이 되고 있습니다.

冷戰時代의 낡은 思考方式에서 脫皮하여 發想의 大轉換을 強調하고 있는 「새로운 思考」는 최근 수년간에도 그러했지만 앞으로의 國際關係에 대단히 중요한 影響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思考」의 중요한 몇가지 概念을 간추려 보고자 합니다.

첫째, 資本主義에 대한 새로운 解釋입니다.

現代 資本主義는 危險에 처해 있는 것도 아니고 타도의 대상도 아니다. 놀라운 技術發展을 이룩하고 「情報化 社會」로 移行하고 있는 生動力에 가득찬 社會이다.

資本主義 社會의 勞動階級은 날이 갈수록 貧窮化되기는 커녕 中產層化하고 있으며 階級鬭爭의 必要를 느끼지 않고 있다.

資本主義 經濟發展 方式으로 開發途上國들이 눈부신 經濟成長을 이룩하고 있으나 社會主義 經濟開發 모델은 成功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核戰爭은 일어나서도 안되고 일어날 수도 없다.

核武器는 이미 政治的 効用性을 喪失했으며, 「核武器없는 世界」를 實現해야 한다.

셋째, 階級鬭爭論은 이미 오늘날의 世界에는 適用될 수 없으며 「階級的 利益」보다 「人類的 利益」이 重視되어야 한다.

國際關係에 있어서 脫이데올로기, 脫軍事化로 資本主義 世界와의 참된 平和共存을 維持해야 한다.

넷째, 國家安保의 概念을 종전의 「絶對安保」(Absolute Security)에서 「共同安保」(Mutual/Common Security)로 修正한다. 相對方이 威脅을 느끼지 않도록 相對方의 安保를 생각하며 自國의 安保를 圖謀해야 참된 安保가 가능하다. 또한 軍事爲主의 安保보다 協商을 통한 紛爭의 解決, 軍備統制와 軍縮의 實現 등 政治·外交·經濟的 側面을 包括하는 廣義의 安保概念이 보다 더 國家利益이 된다.

다섯째, 從來의 攻勢的(防禦)戰略概念을 「守勢的 防禦戰略」(Defensive Defence Strategy)으로 修正하고 「合理的 充足性」(Reasonable Sufficiency)에 依據, 防禦에 충분한 戰力만을 維持하도록 한다. 이것이 軍縮의 論理를 형성하는 것이다.

여섯째, 世界의 날이 갈수록 相互依存의 이 되어 가고 있으며, 蘇聯도 閉鎖와 孤立에서 脫皮하여 國際社會의 多樣性和 平等性을 인정하고 相互依存의 統合世界에 參與, 상호이해와 協力으로 共存共榮의 世界를 建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思考」에 의한 蘇聯의 對外政策은 行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美·蘇 新데탕트를 통한 地域紛爭 介入 解消, 東西陳營間의 軍事的 信賴構築作業, 核 및 在來式 軍備減縮이며 國際關係에서의 柔軟性和 實用主義的 接近, 國內에서의 人權保障, 自由化, 民主化 그리고 開放의 推進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改革의 앞날은 험난하고 많은 不確實한 變數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즉 經濟改革의 어려움, 분출하는 國民들의 多樣한 欲求, 少數民族 問題, 東歐國의 將來問題, 一黨獨裁體制的 改革, 多元主義의 實現, 고르바초프의 政治基盤 構築 등이 그것입니다.

많은 不確實한 變數에도 불구하고 蘇聯의 改革은 「體制內에서의 改革」을 追求해 온 지난 30여 년간의 蓄積된 努力의 結果로서 그 「客觀的 必要性」이 널리 認定되고 있으며, 「改革以外的 다른 代案이 없다」는 점에서 고르바초프가 설사 실각한다 하더라도 그 속도와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지 언정, 改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지난 4년간 推進해 온 glasnost와 民主化를 통해 國民들의 意識이 크게 변화했고, 國民들의 呼應속에 多元化 社會의 漸進的인 轉換 趨勢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段階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극렬 보수勢力, 이를테면 러시아 民族主義者와 軍, KGB 등이 聯合한 反動的 政權 (붉은 파시즘)의 出現 可能性을 排除할 수는 없겠으나 現在로서는 그 可能性이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蘇聯의 改革은 앞으로 3-5年間, 즉 1990年代 前半期가 가장 어려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經濟改革이 어느정도 契도에 오르려면 「한 世代」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관측입니다. 美國이 1930年代初의 大恐慌을 거치면서 修正資本主義로 發展했듯이, 蘇聯도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해 修正社會主義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蘇聯指導者들의 主張에 留意하게 됩니다.

西方側으로서 蘇聯의 改革이 成功的으로 推進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西方의 利益이 될 것이라는 見解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蘇聯의 變化는 사실상 對蘇 封鎖政策 成功의 產物로서 蘇聯의 變化가 多元主義를 指向하는 本質的인 變化가 되도록 유도해야 하며, 蘇聯은 이미 여러 強大國의 하나 일뿐 超強大國이 아니며 軍事的으로 敵對視할 때는 지났다는 主張(George Kennan)도 나오고 있습니다.

西方世界는 蘇聯과 協力하여 軍事的 對決과 競爭을 緩和하고 平和롭고 보다 더 安全한 世界를 建設하는 한편 交易과 經濟協力을 조심스럽게 확대해 나감으로써 西方의 利益을 追求하는 동시에 蘇聯의 改革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IV

蘇聯에서의 變化와 함께 美·蘇間에는 新대땅트 氣運이 造成되고 東西關係에 本質的이라 할 수 있는 變化가 進行되고 있습니다. 冷戰體制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아마도 1990年代에는 더욱 深化될 것으로 보입니다. 冷戰이 하나의 過程(process)이었던 것처럼 脫冷戰도 하나의 過程으로서 오랜 기간에 걸쳐 展開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合理的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冷戰의 展開過程을 간단히 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WWⅡ 직후 蘇聯은 占領地域인 東歐 8個國을 共產化함으로써 冷戰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탈린의 戰後 赤化攻勢는 그리스, 터키와 프랑스, 이탈리아 등으로 확대될 危機에 직면하여 美國은 마샬플랜(Marshall Plan)을 施行했고,

蘇聯은 코민포름(Cominform)을 組織하여 이에 對抗함으로써 東西分斷이 굳어지고 敵對關係로 發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獨逸問題를 둘러싼 對立은 베를린 封鎖로 나타났고, 政治, 經濟, 理念的 對決이 軍事的 對決로 확대되면서 集團防衛體制로서 北大西洋條約構造(NATO)와 바르샤바條約機構(WTO)가 結成되었습니다. 中國本土 共產化와 韓國戰爭으로 危機意識은 高潮되었고 西獨의 再武裝과 NATO 加入, 그리고 이에 對抗하여 東獨의 再武裝과 WTO 加入으로 冷戰이 擴散되어 나갔습니다.

美國은 蘇聯의 膨脹主義에 對抗하여 「對蘇封鎖政策」과 「前方防衛戰略」을 採擇하고 51個國과 同盟體制를 構築하고 軍事基地와 美軍駐屯을 擴大해 나갔습니다.

스탈린 死亡 以後 이른바 스탈린의 戰後攻勢는 일단락되고 東西間의 對決은 第3世界의 地域紛爭 介入과 核武器를 포함한 軍備競爭으로 나타났습니다. 雙方間에 그릇된 情報(misinformation)와 그릇된 判斷(misjudgment), 그리고 그릇된 計算(miscalculation)으로 危機는 擴大되어 갔고, 作用-反作用의 惡循環(Action-Reaction Cycle)으로 軍備競爭은 날로 熾熱化되어 갔습니다. 오늘날 이 地球上에는 5만개의 核爆彈이 貯藏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核爆彈의 평균 破壞能力은 히로시마 폭탄 위력의 30배나 되는 것으로 評價되고 있습니다. 가공할만한 破壞力과 波及效果로 말미암아 수백개만 가져도 人類를 全滅시킬 수 있는데, 이 地球를 수십번이나 破壞시킬 수 있는 엄청난 數의 核武器를 過다 保有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6백만의 軍隊가 9만대의 탱크와 14만대의 裝甲車를 갖고 對陳하고 있습니다.

WWII 以後 40年間 持續된 冷戰은 1,800萬名의 人命被害와 막대한 資源을 浪費하는 등 막중한 代價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脫冷戰의 프로세스는 軍備減縮과 地域紛爭介入 解消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美·蘇間의 核武器競爭은 1980年代에 들어 戰略的 均衡을 形成했습니다. 兩 超強大國은 지난 30餘年間的 軍事的 競爭과 對決로 인해 國力이 과도하게 消耗되고 經濟的 곤경에 빠져 쇠퇴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蘇聯은 體制崩壞의 危機에 처하게 되고, 더이상 과중한 軍事費負擔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蘇聯은 經濟再建을 위하여 軍備減縮과 交易을 시급한 至上課題로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우선 美·蘇間의 核軍縮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르바초프는 1990年代末까지 核武器의 完全廢棄를 통해 「核武器 없는 世界」의 實現을 主張하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美國 카터 大統領도 就任演說에서 같은 提議를 한 바 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86. 10 레이카비크 美·蘇 頂上會談에서 레이진 美大統領의 提議를 받아들여, 中距離 核武器의 完全廢棄와 戰略核武器의 50% 減縮에 同意함으로써 核軍縮 協商은 급진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蘇聯은 그동안 계속 反對해온 現場檢證制(verification through on-site inspection)을 받아들임으로써 87年末에 中距離 核武器(INF) 廢棄協定이 締結되고, 88年 여름부터 本格的으로 개시된 廢棄作業이 순조로히 進行되고 있으며 91년까지는 廢棄 完了될 豫定입니다.

戰略核武器(사정거리 5, 500km 이상) 50% 減縮協商(START)은 많은 어려운 問題들을 克服하고 90年中에는 協定締結이 可能할 것으로 展望되고 있습니다. 그후에도 美國議會의 認准 등 간단치 않은 障礙들이 있습니다만 豫상외의 突發事態가 發生하지 않는 한 7年間에 걸친 段階的 廢棄作業을 통해 1990年代 後半期에는 50% 減縮이 完了될 것으로 期待됩니다.

現在 이렇다할 進展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정거리 500km 以內의 短距離 戰術核武器(SNF) 減縮問題입니다. 蘇聯은 즉각적인 完全廢棄協商을 主張하고 있으나, 美國은 유럽에서의 在來式 軍事力 均衡이 實現되고, 우선 蘇聯이 戰術核武器의 일방적 減縮을 통해 均衡을 이룩해야 協商을 개시할 수 있다는 立場이며, 部分減縮에 한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1990年代初부터 協商이 개시될 수 있을 것이며, 90年代에는 完全 廢棄 아니면 部分減縮이 實現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990年代는 核武器 減縮에 커다란 進展을 이룩하는 年代가 될 것이며, 물론 「核武器 없는 世界」의 實現이라는 理想과는 거리가 먼 것이겠지만, 人類가 보다 安全한 世界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希望을 갖게 합니다.

다음은 東西陳營間의 在來式 戰力減縮입니다.

지난 15年間 中部유럽地域을 對象으로 했던 相互均衡減軍協商(MBFR)은 失敗로 끝나고, 今年 3月부터 全 유럽地域을 對象으로 하는 유럽 在來式 戰力減縮協商(CFE)이 새로이 개시되어, 중요한 問題는 대부분 合意가 完了되는 등 급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90年中에 成功的으로 타결될 것이라는 樂觀論이 支配的입니다.

87年初부터 스톡홀름 協約에 의한 東西陳營間의 軍事的 信賴構築 措置의 施行이 本格化되고, 특히 88年末 고르바초프가 유엔演說을 통해 宣言한 바르샤바側의 一방적 軍縮의 施行과 今年初 最初의 軍事力 現況 公開 그리고 現場 檢證制의 수용 등이 協商妥結 展望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부시 美大統領이 提議한대로 明年中에 協商이 妥結되고 93년까지 실제상 軍縮을 完了할 수 있게 된다면, 바르샤바軍의 奇襲攻擊 및 대규모 攻勢作戰 能力은 除去되고 東西유럽間에는 보다 낮

고 안전하고 균형된 戰力을(탱크의 경우, 現存 9만대 水準이 4만대로, 각각 2만대씩) 維持하게 될 것이며, 결국은 美軍과 蘇聯軍의 유럽撤收도 不可避해질 것이며, 이는 유럽의 平和와 安全, 그리고 새로운 유럽秩序 形成에 크게 기여하는 歷史的 轉機가 될 것으로 展望됩니다.

다음은 地域紛爭 介入 解消問題입니다.

고르바초프 登場以來, 뚜렷한 戰略的 利得이 없는 곳에 過다한 軍事費 支出을 抑制하는 實用主義 政策 追求로 아르가니스탄에서 蘇聯軍이 完全 撤軍했고, 캄보디아에서는 베트남軍이 完全撤收했으며, 앙골라에서는 쿠바軍이 段階的으로 撤收中에 있으며 蘇聯은 直接的인 軍事介入活動을 中絶하였다고 宣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種族的, 宗教的, 領土的 이유 등으로 地域國家間的 紛爭은 없을 수 없겠으나, 超強大國들이 影響力을 확장하기 위하여 地域紛爭에 介入하는 일이 없도록 協力하고 國際機構를 통해 解決하자는 主張이 지켜질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蘇聯은 軍事介入을 中絶한 地域에서 아직도 계속 經濟 및 軍事援助를 間接的으로 提供하고 있습니다.

脫冷戰의 프로세스는 「새로운 國際秩序」의 形成이라는 어려운 課題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새로운 秩序가 어떻게 形成되어야 할 것이냐는 1990年代가 當面한 가장 어렵고 重要的 課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東歐圈에서는 崩壞作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蘇聯은 國家自決權을 認定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限界가 있을 것입니다. 즉 어떠한 形態로든지 WTO에 殘留하여 蘇聯의 安保利益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최소한의 要求가 될 것입니다만 헝가리와 폴란드에서 시작된 東歐圈의 改革·開放의 變化는 조만간 다른 나라들에 波及될 것이고, 蘇聯이 설정한 최소한의 要求條件이 지켜질 수 없는 事態로 번질 可能性이 많습니다. 오히려 「유럽文化로의 復歸」를 要求하는 東歐國家들이 늘어날 것이며, 따라서 東歐圈問題는 東西陳營間에 뜨거운 爭點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西歐權은 1992년에 單一市場을 形成함으로써 經濟的인 統合을 이룩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政治的 統合을 實現하고자 할 것입니다.

한편 고르바초프는 蘇聯主導下에 東西의 障壁을 허물고 戰爭의 危險이 없는 安全하고 平和로운 「유럽共同의 집」(Common European Home)를 유럽사람들끼리 建設하자고 主張하고 있습니다. 물론 美國으로서는 이 主張이 美國과 유럽을 離間시키고 유럽大陸에서 美國을 逐出하려는 음흉한 企圖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蘇聯은 유럽의 一員이 될 수 없다고 主張하고 있습니다. 한편 西方側은 「EC의 全 유럽化를 통한 유럽統合」을 主張하고 있습니다.

美國은 어떤 형태로든지 NATO를 再整備하여 유지하고자 할 것입니다만 蘇聯의 威脅이 減少됨에 따라 軍事同盟體로서의 사명을 成功的으로 完遂하게 된 셈이 되므로 NATO는 폐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性格變化가 不可避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蘇聯은 軍事同盟의 相互廢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상 상당기간 WTO의 維持가 不可避해 질 것입니다.

問題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獨逸의 將來問題입니다. 東獨에서도 改革과 開放을 推進하게 되면 兩獨은 자연스럽게 統一에 보다 더 가까이 接近하게 될 可能性이 있습니다. 그러나 周邊勢力들이 蘇聯 GNP의 1/2, 人口 8,000만을 가진 強大한 統一 獨逸의 出現을 허용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關聯하여 蘇聯의 同意下에 獨逸을 主軸으로 하는 中立化된 中部유럽 (Finlandization of Central Europe)의 出現 可能性도 提起되고 있으나, 오히려 東歐圈의 핀란드化가 先行될 것입니다.

지난 40年間 持續해온 美國의 「對蘇封鎖政策」도 1990年代에는 成功的인 使命完遂와 함께 아마도 廢棄되고 새로운 政策으로 轉換될 運命에 처하게 될 것으로 展望됩니다. 물론 이 政策에 土臺를 두었던 軍事戰略도 修正이 不可避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美國과 西方은 對蘇聯 交易을 철저히 規制해 왔고 또한 技術의 移轉을 統制하는 政策을 實施해 왔습니다. 蘇聯은 활발한 交易과 技術의 移轉 그리고 經濟協力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나 美國은 조심스러운 接近方法을 擇하고 있습니다. 즉 蘇聯의 經濟改革이 長期的으로 軍事的 威脅의 增大에 寄與하는 基盤을 提供하지 않도록 政治的 民主化와 多元化가 수반될 때에만 選別的인 經協을 提供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冷戰이 그러했듯이 脫冷戰도 유럽舞臺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東北亞에도 波及되고 유럽에서와 같은 速度로 進陞되리라 期待할 수 있는나는 別問題인것 같습니다.

V

東北아시아는 4強의 利害가 尖銳하게 交叉하는 地球上의 唯一한 地域이며 1990年代의 東北亞에서의 戰略的 關係는 더욱 복잡하고 流動的이 될 可能性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東西 兩陣營間의 兩極現象으로 말미암아 어느 한쪽의 變化는 다른쪽의 迅速한 變化를 수반할 수 있으나, 東北亞에서는 4強의 合意가 그리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變化는 느리고 制限的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르바초프는 아시아에서도 유럽에서와 같이 헬싱키體制의 構築을 통해 「Asian Process」의 實

現」을主張하고 있으나, 美國은 이것을 美國이 이미 構築한 아시아에서의 既存 安保體制를 破壞하려는 도전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地域國家들이 美國과 訣別을 각오하면서까지 蘇聯의 提案에 呼應할 可能性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美國이 主導하는 安保體制가 큰 變化없이 持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大陸勢力인 蘇聯은 美國의 海軍力 優位維持와 日本의 海軍力 增強을 阻止하기 위하여 東北亞 海域에서 海空軍力の 凍結 및 減縮과 美軍基地의 撤廢 등을 主張하고, 一方的 減縮으로 壓力을 가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海洋勢力인 美國과 日本은 多少의 調整은 모르되 基本的으로는 강건한 海軍力 維持와 前方基地 維持 戰略을 계속하여 蘇聯의 太平洋 進出을 阻止하고 美·日 主導에 이 地域의 安全을 保障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蘇聯과 中國은 經濟改革의 推進을 위해 兩國間的 關係를 正常化하고 軍縮을 통해 緊張을 緩和해 나갈 것입니다. 蘇聯은 시베리아 開發, 中國은 黃海沿岸開發을 推進해 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日本과 韓國 등 西方의 資本과 技術을 必要로 하고 있으며 東北亞地域의 安定과 平和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蘇聯은 아시아에서의 影響力 擴大를 위하여 유리한 安保環境의 造成과 함께 地域內 國家들과 經濟協力を 積極的으로 推進하려 할 것입니다.

中·蘇 對決時代에 蘇聯의 유라시아大陸 支配를 阻止하기 위하여 美國과 中國은 安保協力を 維持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長期的으로 볼때 美·中 兩國은 共同利害關係를 持續할 것으로 보입니다. 中國은 美國을 對蘇勢力 均衡鎚로 利用하고 現代化를 위한 支援을 계속 확보하고자 할 것입니다. 따라서 中·蘇 和解가 軍事同盟 復活로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蘇聯은 北方4島 返還協商 등을 통해 日本과의 關係改善을 試圖할 것이나 兩國間的 傳統的 不信任感과 長期的으로 본 蘇聯의 潛在的 威脅, 美·日間的 關係 등으로 基本的인 變化는 期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經濟大國으로 登場한 日本은 地域內에서의 政治·軍事的 影響力을 擴大하고자 할 것이며, 軍事力の 增強을 위해 北方으로부터의 安保威脅이 계속 存在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美·日間的 安保協力體制는 持續될 것이나 美國과 地域內 國家들은 日本의 軍事大國化 傾向을 경계하게 될 것입니다. 日本의 막대한 經濟力이 어디로 향하게 되는가는 앞으로의 情勢推移에 적지않은 影響을 주게 될 것입니다. 美國은 日本의 開途國 援助 대폭 擴大를 권장하는 반면 지나친 軍備增強에 制動을 걸고 軍事裝備 供給國이 되는 것을 阻止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東北亞의 情勢는 유럽에서와는 달리 變化의 速度가 느리고 상당기간 流動的인 狀態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冷戰時代를 마무리짓고 脫冷戰時代로 移行하려는 世界的 趨勢에 逆行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蘇聯이 東北亞에 있어서 一方的 軍縮을 단행하여 威脅을 減少하고 진지하게 變化를 원할때, 美國은 이에 呼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東北亞에 있어서 美國의 對蘇封鎖政策과 前方防衛戰略도 漸進的이고 段階的인 修正이 不可避하게 될 것이라고 想定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韓半島에서 情勢變化의 速度가 빠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東北亞情勢의 變化를 先導하게 될 可能性도 있습니다.

VI

1990年代 國際情勢가 韓半島 安保에 미칠 影響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蘇聯과 中國에 있어서의 改革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1990年代에도 계속 推進될 것이며, 그 기간중에는 周邊地域의 安定과 平和를 必要로 하게 되며, 이는 韓半島의 緊張緩和에 順機能으로 作用하게 될 것입니다.

中·蘇兩國은 韓國과는 交易·經協 특히 技術協力을 增大시켜 나가는 한편 北韓과는 軍事紐帶를 계속하려 할 것입니다. 특히 中國의 경우 革命 第1世代가 執權하고 있는 한 北韓에 대한 傳統的 友誼를 維持하려는 情緒的 接近을 계속할 것이며, 蘇聯은 軍事支援을 통해 對北韓 影響력을 계속 維持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中·蘇和解로 北韓의 줄타기 外交는 어려워 질 것이며 오히려 北韓의 모험을 抑制하고 開放과 改革을 促求하는 共同壓力이 가중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美·蘇 新대당트와 中·蘇和解는 4強으로 하여금 韓半島의 現實認定과 平和共存을 통한 暫定體制(modus vivendi) 樹立에 대한 利害接近과 協力の 可能性을 增大시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強은 南北韓과 각각 關係正常화를 통해 「사실상의 두개 코리아 政策」(de facto Two Koreas policy)를 具現하게 될 것으로 展望됩니다. 특히 蘇聯이 韓半島問題 解決에 積極的으로 나서서 「南北韓 關係改善 過程의 國際化」를 推進할 可能性이 있으며, 이에 美國이 呼應하면 事態 進展은 빨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東北亞에서 海·空軍力 減縮을 主張하는 蘇聯의 立場에 美國이 呼應할 可能性은 희박하지만, 韓半島에서의 軍備統制에는 美·蘇의 利害가 어느정도 合致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美國의 對蘇 封鎖政策과 前方防衛戰略의 修正, 그리고 國防費 削減 등 經濟的 困難과 連繫되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展望됩니다.

韓·美 安保體制는 계속 維持될 것이지만 駐韓美軍의 性格과 機能의 變化, 그리고 改編(re-structuring)과 段階的 減縮은 不可避하게 될 것이며, 防衛費 分擔 要求는 增大될 것입니다.

- 4) 問題는 北韓의 態度입니다. 肯定的인 周邊情勢의 變化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北韓은 金日成이 執權하고 있는 한 가까운 將來에 「하나의 朝鮮政策」과 對南武力統一戰略을 포기하는 큰 變化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共產主義 國家의 獨裁者가 스스로 자기의 政策路線을 根本적으로 變更한다는 것은 도저히 不可能하다는 것이 共產主義 歷史의 教訓입니다.

그러나 1990年代를 통하여 北韓의 變化 可能性을 排除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共產世界의 本質的 變化, 韓國과의 國力隔差 深化, 北韓의 經濟沈滯 深化, 그리고 獨裁者 金日成의 老衰化라는 狀況下에서 現 體制를 계속 그대로 지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冒險的 革命戰爭 路線을 強行하거나 아니면 平和共存을 받아들여 開放·改革을 推進하는 選擇의 岐路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駐韓美軍의 減縮, 南北韓 軍備統制 可能性 등의 情勢變化에 따라서는 漸進的 變化의 길을 택하게 될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을 것입니다.

- 5) 우리의 國內的 要素도 考慮되어야 할 것입니다. 民主化와 多元化는 계속 推進될 것이며, 經濟技術의 發展으로 情報化 社會로의 移行과 國際化가 促進될 것입니다. 國民들의 福祉欲望은 增大될 것이고 이는 資源配分에 어려운 問題를 提起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VII

1990年代의 韓半島 安保環境에는 커다란 變化가 豫想되며 우리는 새로운 挑戰에 當面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變化에 수반될 수 있는 危險에 對備하여 경계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동시에 다가올 機會를 잘 捕捉하여 活用할 수 있도록 準備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韓國安保가 當面할 중요한 課題들을 간단히 살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對北韓 軍事力 均衡의 達成 問題입니다.

우리는 北韓에 비해 모든 分野에서 優勢합니다만 유독 軍事力에 있어서 劣勢하며 이것이 韓半島 不安의 原因이 되어 왔습니다. 北韓이 무엇을 企圖하는가 보다는 北韓이 어떠한 軍事能力을 갖고 있는가가 問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5年間 自主적으로 戰力增強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만 南北韓間에는 軍備競爭의 作用 - 反作用의 惡循環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탱크의

경우, 自主的 戰力增強事業을 시작하던 1970年代 中盤에는 700 對 1,500였습니다만 오늘날에는 1,500 對 3,500으로 北韓이 2배의 優勢한 比率을 維持하고 있다는 데에는 變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優勢한 經濟力을 바탕으로 戰力增強을 促進하여 北韓으로 하여금 軍備競爭보다는 軍備統制의 方向으로 나오도록 壓力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즉 擴大指向의 軍事力均衡 達成 努力과 동시에 縮小指向의 軍事力均衡 達成努力도 並行하는 「二重的인 接近方式」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둘째, 韓·美 安保協力體制를 계속 維持·發展시켜 나가되 駐韓美軍의 直接介入과 주도적 役割 遂行에 依存하는 性에서 벗어나 有事時 必要한 分野의 支援은 받되 基本的으로는 「韓國防禦의 韓國化」를 具現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駐韓美軍의 撤收 可能性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만 아니라 國際情勢의 變化를 能動的으로 활용하고 民族自尊과 平和共存의 實現을 促進하기 위하여 發想의 大轉換과 새로운 思考가 必要합니다.

우리가 主導的 役割을 遂行하고 美軍이 補助的·支援的 役割을 遂行한다는 原則下에 聯合指揮 構造라든가 作戰統制權 등 여러 懸案問題를 解決하고 韓·美 軍事協力體制를 段階的으로 整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自主國防體制를 強化하고 國防管理를 經濟化·效率化하는 努力을 倍加해야 할 것입니다. 軍事裝備가 엄청나게 高價化하고 있는 趨勢와 關聯하여 國防管理의 費用 對 效果를 높이는 努力은 아무리 強調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戰略概念을 토대로 量보다 質 爲主의 戰力構造를 發展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合同作戰體制로 軍構造를 整備하고 高級幹部들의 戰略·戰術 및 合同作戰 能力 培養에도 倍前의 努力이 傾注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平和統一에 이르는 中間段階로서 「南北聯合」을 實現해 나가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에 對備하여 「包括的 安保(Compreshensive Security)概念」을 發展시켜야 할 것입니다. 北韓은 共產化 統一이 不可能하다고 判斷하게 될 것이며, 次善의 方案으로 北韓에서만이라도 共產體制를 계속 維持하고자 「南北聯合」을 받아들일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을 것입니다.

「南北聯合」實現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課題는 軍備統制問題가 될 것이며, 軍事的 信賴構築措置를 포함한 軍備統制에 대한 能動的인 對備가 要請되고 있습니다. 南北韓 軍備統制는 美軍이 韓國에 駐屯하고 있을 때 實施해야 安全할 것입니다. 軍事力 增強을 통한 安保維持 못지않게 政治·軍事的 協商을 통해 相對方의 能力과 企圖에 變化를 招來케 하는 「包括的 安保」를 생각해야 할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近世史를 통하여 볼 때 歷史의 轉換期에 우리는 항상 守勢的·被動的 立場에서 희생만 強要당했습니다. WWⅡ 直後의 國土分斷, 冷戰初期의 戰爭, 冷戰이 深化되는 過程에서의 軍事的 對決과 軍備競爭이 그것입니다.

이제 脫冷戰의 轉換期를 맞아 이러한 悲劇의 歷史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歷史의 主役으로서 未來指向의 眼目を 갖고 다가올 機會를 잘 捕捉하여 能動的으로 活用하는, 積極的이고도 主動的 姿勢로 民族의 活路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1990年代는 우리 民族에게 絶好의 機會를 提供하는 年代가 될 것입니다.